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소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16	10. 23	10. 30
대 표 기 도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이상호 목사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0월 축복인사 - 감사하는 성도님은 아름다우세요(성도 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중보 기도 - 교회와 나라(한국, 독일) 우크라이나를 위해 매일 기도 합니다.
3. 청년 소 모임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귀국	류연진 자매(10일)

지난주통계

십 일 조	
추수감사	
합계(Euro)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64장	다같이
기 도 Gebet	-----	노지민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창21 : 27 - 34 (구p27) (1.Mose 21:27-34)	노지민 성도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이름에 드러난 고백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효종 집사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브레멘 대학들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300'으로 다져지는 과정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300명이라는 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3만 5천명인 적군을 이길 확률이 단 1퍼센트도 없는 수입니다. 백전백패의 수입니다. 현재 어렵고 힘들다면,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실패한다면 지금 연단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3만 2천을 '300'까지 줄여나가는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길 바랍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아픔과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 시카고에서 보낸 7년의 세월이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그야말로 교만덩어리였습니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미국에 툭 떨어트려 모든 교만을 짓밟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은 한 달 내내 유대인 가게에서 눈 치우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정작 월급날이 되자 돈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대만큼 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3만 2천을 '300'으로 줄이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하는 고통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300'으로 다져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내 영역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진 3만 2천을 '300'으로 줄여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신앙생활 중 체험한 경험을 나눠보세요
2.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싶나요?